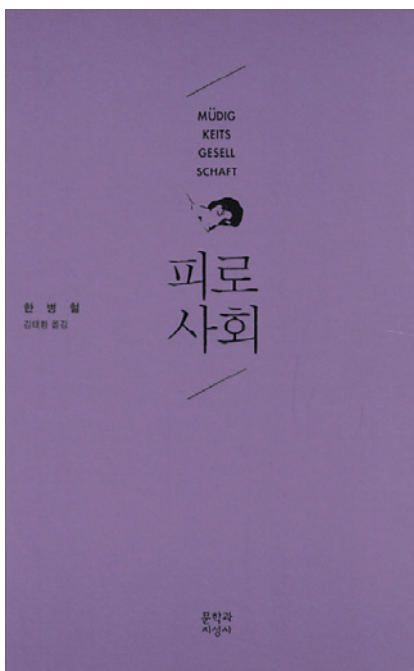


책으로 세상을 읽다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긍정성의 함정 「피로사회」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피로사회』, 한병철 저. / 출처 : 네이버

현대를 사는 인간에게 ‘피로’는 매우 익숙한 단어다. 돈이 많은 적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날 피로를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피로에 지치게 만들었을까? 단순히 너무나 바빠서 생기는 육체적 피로라면 그저 조금 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오늘 다룬 책의 저자는 피로의 원인이 특정한 사회 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극심한 피로와 함께 우울증, 탈진 증후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

책 제목은 ‘피로사회’다. 혹시 지난해 서평에서 다룬 ‘투명사회’가 생각나는가?

맞다. 이 책은 투명사회를 썼던 저자 한병철이 저술했다. 사실 투명사회보다도 2년 앞서 출간되었고 훨씬 큰 화제가 되었던 책이다. 피로사회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자기 착취가 타인의 명령이 아닌, 자유롭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후작인 투명사회에서 ‘자유’가 곧 감시와 통제를 유발했다면, 피로사회에서는 착취와 혹사의 가면으로서 역할을 하는 셈이다.

현대인이 피로를 달고 사는 이유

투명사회처럼 이 책에서도 저자는 ‘긍정



현대인이 흔하게 겪고 있는 피로와 우울증



성'과 '부정성'을 강조한다. 긍정성이란 같은 것, 동질적인 것, 매끄러운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성은 다른 것, 이질적인 것, 부딪히는 것 등을 말한다. 오늘날의 세계는 이 긍정성이 지배하고 있다. 더 많은 생산, 더 큰 효율, 더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이질적인 존재가 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책에서 언급되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추가된다. 바로 '명령'과 '금지' 및 '억압'의 부정성, 그리고 '할 수 있음'과 '자율'이라는 긍정성이다. 저자는 이를 기준으로 과거의 규율사회, 오늘날의 성과사회를 나눈다. 규율사회는 20세기 중반까지로 보았는데, 즉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마라'라는 부정성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이런 사회에서 인간은 복종적 주체로서 자신이 맡은 의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확실한 보상과 인정이 주어졌다. 그런데 성과사회로 들어오면서 모든 외적인 강제가 사라졌다. 대신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율과 능력이 중시된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독려하고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외부로부터 특정한 명령이나 목표도 주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신만이 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게 된다.

왜 인간은 규율사회에서 성과사회로 넘어오게 되었는가? 저자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논리이다. 생산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금지와 명령의 부정성은 그 효력을 다하게 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할 수 있음', '자율'



성과사회의 개인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인다

이라는 긍정성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자신을 독려한다. 이 때문에 '당위'의 부정성이 아닌 '능력'의 긍정성이 정제된 생산성을 끌어올릴 새 동력이 된다.

그러나 성과사회에서 긍정성은 치명적인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는 곧 '자기 착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과사회에는 금지의 부정성이 없다. 이는 달리 말하면 '무언가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을 힘'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존재한다. 따라서 성과사회의 주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움직여 어떤 성과를 이뤄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기를 소모하고 착취하는 내재적 폭력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성과사회의 현대인은 폭력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라고 저자는 말한다.

자기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들은 어느 순간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고, 더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에 빠진다.

저자는 이 현상을 '고독한 피로'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고독'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성과사회에서 개인은 오직 나 자신에게만 몰두한다. 친구, 이웃 등의 타인이라는 이질성(부정성)이 개입할 여유는 없다. 한시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성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일종의 나르시시즘적 장애로 보기도 했다. 문제는 그러한 자기 착취의 결과 탈진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려 하기보다 오히려 모든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고단한 삶으로 지쳤을 때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독한 피로는 개인을 사회에서 고립시키며, 그 결과 인간의 끈끈한 공동체를 파괴한다. 타인에게 의지할 곳 없는 개인은 곧 우울증이라는 내면적 정신 질환을 겪게 된다. 저자는 우울증이야말로 오늘날 성과사회의 고독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서 우울증



지속된 차기 착취의 결과 인간은 고독한 피로에 빠지게 된다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저자의 주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한국처럼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극단적 성과사회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긍정 과잉

또 하나, 긍정 과잉으로 인한 피로는 우리의 주의, 즉 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에서 긍정성에 전도된 인간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저항하지 못한다.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긍정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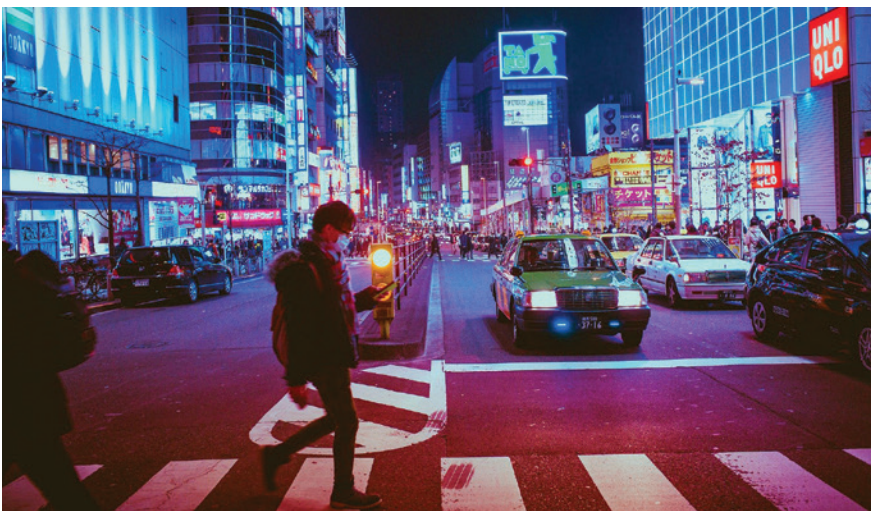
리하여 개인의 시선은 한 곳으로 집중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산만하게 분산된다. 그런데 저자에 따르면, 문화적 창조의 원천인 인간의 ‘사색’하는 능력은 외부 자극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항할 때 발현될 수 있다. 사색은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며, 외부 대상을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도무지 가만히 서서 어느 하나에 집중하기 힘든 환경이다. 집 안에서는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 기기라는 자극이 존

재하고 집 밖으로 나가면 도로를 오가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온갖 화려한 불빛과 간판이라는 자극이 널려 있다. 자극의 과잉이라는 긍정성은 곧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긍정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의 시선을 흠뜨려 놓는다. 이로 인해 인간의 주의를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바로 ADHD,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다. 예전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겪는 질병이었으나 요즘에는 성인들도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사색이 없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전환이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중단’이라는 부정성이 필요한데, 중단은 어떤 활동이나 자극에 저항하여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분노’이다. 저자에 따르면 분노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부정하는 감정을 말한다. 즉 사색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분노는 기존 상황을 끝내고 새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의 주체들은 이러한 분노를 폭발시킬 힘이 미약하다. 대신에 ‘짜증’이 만연해졌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짜증은 자극 과잉의 산만함 속에서 특정 대상에게만 신경질을 내는 것인데, 이는 어떤 심대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

여기서 필자가 10월호에 썼던 서평의 책 ‘뉴스의 시대’를 적용해보자. 저자인 알랭 드 보통은 우리가 뉴스로 인해 매일 분노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의 분노는 한병철이 주장한 ‘분노’와는 다르다. 이는 뉴스 속 특정 대상에 대해 피상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외부 자극들. 각종 미디어와 화려한 도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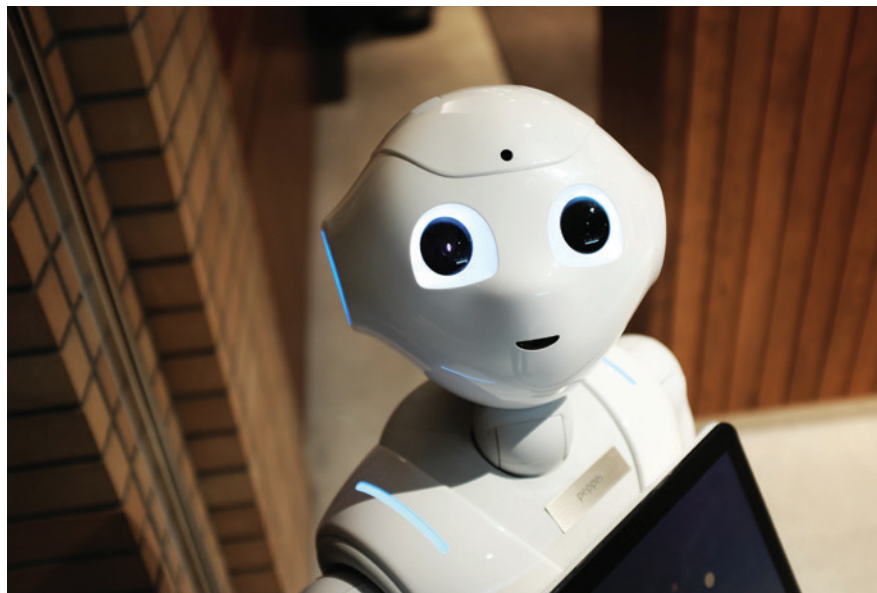
적인 분노를 하는 것으로, ‘짜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온종일 물밀 듯 밀려들어 오는 뉴스의 홍수에서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이렇게 분노 없이 짜증만 가득한 사회는,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피로가 누적되는 우울한 사회다.

피로사회, 그 이후의 사회는?

결론적으로 피로사회는 긍정성의 과잉이 빚어낸 산물이다.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성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혹사하고 착취하도록 만들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을 때 우리는 큰 무력감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성과 주체로서 자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저자는 투명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부정성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한다. 여기서 부정성은 ‘무언가를 하지 않을 힘’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무언가를 하지 못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 것이다.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의미를 넘어서,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깊은 사색의 계기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계로 유대를 확대해 종국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는 듯하다. 현대인이 겪는 피로는 책에 따르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긍정성이 지배하는 시스템에서 개인이 스스로 의지에 따라 ‘중단’하는 것이 과연 큰 효과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면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까?

있을까? 아니 실현 가능한가? 저자는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 지금의 성과사회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규율사회로 돌아가야 하는지, 혹은 전혀 새로운 사회라면 어떤 사회가 필요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어쩌면 저자 자신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필자 개인적 의견으로는, 앞으로 더 좋은 사회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성과사회의 긍정성은 생산 효율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왔다. 그런데 지금의 생산성도 언젠가는 분명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무엇이겠는가? 그때는 인간의 효율성으로도 부족하다. 아마도 AI와 로봇이 인간을 아예 대체해버릴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자신을 착취해도 절대 치지 않는 순도 100%의 긍정성을 가진 존재이다.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돼 행복한 삶

을 누리는 유토피아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생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한, 더 우울한 사회가 올 것이란 생각이다.

이 책은 철학자가 쓴 책답게 여러 철학적 사상, 용어 등이 많이 등장한다. 따라서 술술 읽어나갈 수 있는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 아감벤 등 현대 지성들의 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저자의 생각을 읽다 보면 어느새 책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된다.

물론 피로사회를 극복할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 그래도 현대인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독창적이고도 집요하게 파고든 것만으로,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을 준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의 함정 아래 피로에 지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앞만 보고 달리던 시선을 돌려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생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

그림 출처 : Pixabay, Pexels